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광주 제조업 침체 여전

광주상의, 2분기 기업경기전망

개선 불구 6분기 연속 기준치 ↓ 원자재값 상승 등 리스크 꼽아 기업 선제 대응·정부지원 필요

광주지역 제조업체들의 체감경기 지수가 지난 분기에 비해 다소 개선됐지만, 6분기 연속 기준치를 하회하며 여전히 경기 침체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광주지역 121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2/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 결과, BSI(기업경기실사지수, 기준치=100) 전망치가 '92'로 집계됐다.

이는 금리인상 장기화와 주요국의 고강도 긴축정책에 따른 투자 및 소비심리 위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고

조로 인한 불확실성까지 확대되며 지역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1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 실적은 '59'로 기준치를 밑도는 것은 물론, 원자재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 수출입 부진 등의 이유로 지난해 2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기업 경기가 직격탄을 맞았던 지난 2020년 1, 2분기와 비슷한 수준이다.

업종별로는 '식음료', '고무·화학', '철강·금속가공', 'IT·전기·가전'업종 등에서 경기 호전을 전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음료(120)'업종은 봄철 야외활동 증가와 단체급식 납품 확대 등 소비심리 회복에 대한 기대로 매출 증가가 전망됐다. 또 '고무·화학(109)', '철강·금속가공(108)'업종은 주요국의 경기부양책과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생산, 투자 활동 회복에 대한 기대로 경기 호전을

전망했으며 'IT·전기·전자(111)'업종의 경우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대한 맞춤형 신제품 출시 등으로 매출이 증대가 전망됐다.

반면 '유리·비금속광물(50)', '기계·금형(84)'업종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구조 악화와 납품처 발주량 감소가 예상되면서 경기 하락이 전망됐다. 또 '자동차·부품(69)'업종은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수요 감소와 내수 및 수출 부진이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체감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중견기업(106)에 비해 중소기업(89)의 경기전망 악화가 두드러졌다.

중소기업의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상승 부담과 매출 하락의 우려로 체감경기가 전분기보다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리스크 요인 역시

'원자재가격 상승'이 59.5%를 차지하며 가장 큰 리스크로 꼽혔다. 이외에는 '물가·금리인상' 43.8%, '고물가로 인한 소비 둔화' 38.0%, '원부자재 수급불안' 19.8%, '주요 수출국 경기침체' 17.4% 등이 뒤를 이었다.

수출 여부별로는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이 각각 '100', '65'로 집계됐는데, 수출기업의 경우 세계 주요 국가들의 수요 회복에 따른 기대로 경기전망이 기준치선으로 개선됐지만, 내수기업의 경우 물가상승, 투자 및 소비심리 저하로 이번 분기도 경기 하락을 전망했다.

특히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영향으로는 '부작용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도움이 된다'라는 답변이 50.0%를 차지했으며 '영향이 없다'가 25.4%, '도움은 되지만 전체적으로 부작용이 더 크다'가 14.8%를 차지했다.

이어 대중국 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겠다'라는 답변이 77.7%로 가장 많았고, '점차 줄여나갈 예정' 12.4%, '계속 늘려나갈 예정'이 9.9%를 차지했다.

중국의 리오프닝을 지역 기업이 기회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과제로는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한중관계 개선'이 47.1%, '미·중 갈등과 같은 대중국 사업의 불확실성 해소'가 35.5%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다.

최종단 광주상의 상근부회장은 "2분기는 주요 산업들의 경영 활동이 본격화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침체와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체감경기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경제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과 민간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과 지원이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광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광주은행이 최근 광주 동구청에서 임택 동구청장과 박종춘 광주은행 부행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어르신 금융사기 예방교육'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 동구 어르신 금융사기 예방교육

동구청과 업무 협약 체결 피해사례 안내 교육 실시

광주은행은 최근 광주 동구청에서 임택 동구청장과 박종춘 광주은행 부행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어르신 금융사기 예방교육'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 동구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분기마다 광주은행에서 금융사기 피해 사례 안내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금융 앱(APP)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광주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광주지역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은 335건, 피해액은 96억6000만원인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층의 피해 사례가 전체의 3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광주은행은 '어르신 금융사기 예방교육'을 통해 금융사기의 다양한 유형 및 대처 방법과 더불어 스마트폰을 이용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디지털 금융생활 적응에 큰 도움을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춘 광주은행 부행장은 "빠른 속도로 진화하는 디지털 시대에서 젊은 세대보다 상대적으로 디지털 환경이 낯선 시니어층은 디지털 금융 및 문화에 소외되기 쉽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편리한 디지털 금융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광주글로벌모터스, 양산 1년만에 흑자 전환

당기순이익 129억 '제2 도약 기반'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양산 1년 만에 흑자를 기록하며 지속 가능성을 확인시켰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내년 본격적으로 전기차 생산이 시작되면 내수 및 수출을 병행해 제2의 도약을 이뤄내겠다는 포부다.

30일 광주글로벌모터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본사 상생홀에서 25개사 주주가 참석한 가운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2022년 사업성과 및 2023년 사업계획'을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총 5만대를 생산

하며 당기순이익 129억원을 기록, 일각의 적자 우려에도 불구하고 흑자를 달성했다.

지난해는 주요 설비 신설 등 생산 준비에 따른 비용 등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지만, 본격 양산체제에 돌입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설명이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이번 주총을 통해 지난해 주요 사업성과로 5만대 생산 목표 달성고 최고 품질 확보, 안전한 상생 필터 기반 조성, 품질 환경 안전 등 3대 분야 ISO 인증 획득, 품질경영 대상 등을 꼽았으며 올해는 전기차 생산 기반 구축, 최고 공정 품질 및 부품 품질 실현, 안전한 친환경 경무재해 사업장 달성, 소통 협력의 상생

일터 조성 등을 목표로 삼았다.

올해 4만5000대 생산 목표량을 비롯해 가동률 98%, 합격률 95%, 출고 직행률 92% 등을 달성하고 전기차 생산을 위해 상반기 설비 설계 제작을 완료한 뒤 하반기인 11월에서 12월 중에는 설비 설치 및 시운전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전기차 시험생산에 돌입, 하반기에 양산을 시작해 내수와 수출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제2의 도약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기차 양산과 함께 2교대 인력을 운영하기 위해 순차적인 인력 채용에도 나선다. 광지혜 기자

건설협회 광주시회 회장 내달 4일 선출

김명기·조성래 대표 출마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는 오는 4월 4일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제35회 정기총회를 열고 제13대 회장을 선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광주시회장 선거에는 김명기 국제건설(주)대표이사과 조성래 디알씨충원건설 대표이사가 출마했다.

기호 1번 김 후보는 지난 11대 부회장을 역임했고, 기호 2번 조 후보는 현 12대 부회장을 맡고 있다



김명기 조성래

이번 선거는 전국 사·도회 중 유일하게 전체 회원사가 참여하는 직선제 방식으로 치러진다. 광주시회 선거인단은 총 373개

사로, 4년 전 회장 선출당시 170개사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김 후보는 공약으로 회원 자녀 장학금 지원, 신규 회원 지원책 마련, 건설업 등록기준 완화, 적정공무원 확보, 광주 건설인 포럼 정례화, 대형공사 분할 발주 등을 내걸었다.

조 후보는 신규 회원 및 여성경영인 운영위원회 참여, 회원사 가족 초청행사, 대표자 퇴직연금 제도 도입, 장학금 증액, 시설물 업종전환 지원센터 설치 등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광주시회장 차기 당선인은 오는 6월 26일 취임식을 갖고 4년 임기를 시작한다. 최권범 기자

재테크 칼럼

정답을 맞출 수 없다면 위험을 나눠라

주식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격언 중의 하나가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팔라는 말이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은 늘 바닥과 머리를 맞추려고 한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투자의 절대 법칙이고 최대치의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은 사람의 본능에 가까운 것이기에 이는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실패는 그 욕심을 먹고 산다. 왜냐하면 바닥과 머리를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투자자는 나름대로 각종 지표를 보며 바닥과 꼭지를 예측하려고 한다. 그러던 중에 몇 번을 맞출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운이 좋았을 뿐이고 대부분은 무모한 시도였다는 것을 얼마 되지 않아서 깨닫게 된다.

무릎과 어깨의 격언을 떠올리는 것도 이 때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가 무릎이고 어깨란 말인가. 무릎인 듯 싶어서 샀는데 꼭지였고 어깨인 듯 싶어서 팔았는데 무릎이었던 경우를 많이 경험해 봤을 것이

다. 알아야 할 것은 이 두 지점은 시험문제 정답 맞추듯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간다는 것이다. 분할매수를 통해서 무릎을 만들고 분할매도를 통해서 어깨를 만든다.

투자공부를 하고 경험을 쌓아서 투자의 유단자가 된 사람은 자산시장의 바람이 위로 부는지 아래로 부는지 정도는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쪽으로 바람이 불 때 매수를 준비하고 바닥이다 싶을 때 분할매수를 시작한다. 절대 한꺼번에 사지



송호 경제 칼럼니스트

않아야 무릎을 만들 수 있다. 어깨도 그렇게 만들어 간다. 분할매수, 매도를 하는 것은 사고 파는 지점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괄매수와 일괄매도의 위험도 분산시킨다.

300년 전 일본의 쌀 시장에서 투자의 신으로 불리며 오늘날까지도 투자자라면 누구나 매일 보고 있는 일봉 차트(캔들 차트)의 창시자 혼마 무네히사는 이렇게 말

했다. '쌀을 사고싶은 생각이 들 때 3일을 참아보라. 그래도 사고 싶다면 쌀을 사되 한꺼번에 사지 말고 나누어서 사라. 팔 때도 마찬가지다.'

분할매수는 흔히 말하는 물타기와는 전혀 틀리다 착각해서는 안된다. 물타기는 자신의 판단과 다르게 자산가격이 내려갈 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고 분할매수는 바람의 방향을 읽고 위험 분산을 위해 자산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분명한 계획과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이다.

투자에서 잊지 말아야 할 원칙 중 하나는 위험 분산이다. 정답을 맞출 수 없기에 더욱 그렇다.